



## “씨앗 통해 식물과 인간의 관계를 사유해 보세요”

ACC재단, 기획전시 연계 상품  
‘가이아의 도시 씨앗키트’ 출시  
복합전시3, 4관 5개국 22개 작품

“ACC 기획전시를 연계한 문화상품 구입해 전시 의미를 되새기고 식물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 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2일 개막 예정인 2023 ACC 기획전시 포커스 ‘가이아의 도시’와 연계한 문화상품 ‘가이아의 도시 씨앗키트’를 개발, 출시한다”고 밝혔다.

ACC 기획전시 포커스 ‘가이아의 도시’는 도시 속에서 생명력을 잃지 않고 인간과 유기적인 공존을 실천하는 식물의 특성과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에 대한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다.

ACC재단은 전시의 세부 주제에 맞춰 씨앗을

선정하고 이를 특색있는 상품으로 구성했다.

전시 1부 ‘가이아의 목소리’는 도시 속 자연의 모습을 탐구하고 인문·사회화적인 맥락에서의 반려식물과 정원도시, 도시 농부에 대한 작품을 다룬다. 이에 맞춰 △피마 당근 △화분 토마토 △로즈메리 △스위트 바질 등 일상 속에서 비교적 손쉽게 기르고 수확할 수 있는 씨앗들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한 상품을 구성했다.

전시 2부 ‘속닥속닥 녹색동물’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식물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생존해 가는 식물을 조명하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전시와 연계해 번식 확률을 높이기 위해 낮의 경쟁을 피해 밤에 꽃을 피우는 달맞이꽃을 비롯해 △루피너스 △냉이 △레몬밤 등 색다른 생존전략을 지닌 씨앗을 선별해 상품으로 출시했다.

ACC재단과 함께 ‘가이아의 도시 씨앗키트’

개발에 참여한 ‘씨트키퍼(seedkeeper)’는 씨앗을 매개로 한 제품과 프로그램, 전시 등을 선보이는 디자인 스튜디오다. 협업을 통해 ‘씨트키퍼’는 전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씨앗을 제안하고 시각적으로 돋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제시했다.

‘가이아의 도시 씨앗키트’는 한 세트당 8천원이며, ACC 문화상품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ACC 복합전시 3,4관에서 열리는 기획전 ‘가이아의 도시’는 ‘도시에서 공존하는 인간과 식물의 관계’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식물이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도시로 이주해 변형되는 현상과 도시의 적박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과 공존하려는 식물의 능동적 의지를 통해 인간과 식물의 지속 가능한 공존에 대한 고민을 나눈다.

가이아는 고대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으로

모든 생명의 탄생과 성장, 죽음과 재탄생의 순환을 관장하는 대지의 어머니를 상징한다. 이번 전시에서 ‘가이아’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의 화학적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자기조절시스템, 즉 ‘능동적 존재’로서의 대자연을 의미한다.

‘가이아의 도시’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프랑스, 시에라리온 등 5개국 현대미술가 11인(팀)의 작품 22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조각, 영상, 상호작용 예술(인터랙티브 아트), 소리 예술(사운드 아트)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전시공간은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재활용 가능한 모듈벽체를 활용하고, 가벽을 최소화해 구성했다. 또 보다 다양한 관객층을 위해 ‘쉬운 글 해설’도 함께 제공해 문화 접근성을 높인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22개 동구 관광숙박업체 ‘체류형 관광 활성화’ 협력

### 관광숙박업 얼라이언스 출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주 동구 지역 관광숙박업체가 뭉쳤다.

광주시 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 문창현)은 지난 20일 머물며 즐기는 동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관광숙박업체가 참여하는 동구 관광숙박업 얼라이언스(Alliance)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동구 관광숙박업 얼라이언스에는 동구 지역 관광호텔을 비롯, 한국관광공사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등 22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번 얼라이언스 결성을 계기로 회원사들은 동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협업하고, 관광객 유치

등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동구 관광숙박업 얼라이언스 초대회장을 맡은 서동균 쉼터호텔 대표는 “지역 숙박업체들이 관광객 니즈와 트렌드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얼라이언스를 통한 상호 공유와 협력을 통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가고 싶다”고 말했다.

재단은 동구지역 관광숙박업체와 동반 성장을 목표로 얼라이언스 회원사에 대한 홍보마케팅, 서비스 CS교육 등 관광숙박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 정보 공유, 동구 관광안내자료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선인 기자

## 광주 서구·서구문화원, 광주시 창작희곡 공모전

### 내년 3월 8일까지 응모 가능

광주의 역사와 인물, 자연과 축제 등 광주를 콘텐츠로 하는 창작희곡 공모전이 열린다.

광주 서구와 광주 서구문화원은 내년 3월 8일까지 제6회 광주시 창작희곡 공모전을 진행한다. 응모작품은 90분 내외의 무대공연 분량이어야 하며 어떠한 지면이

나 인터넷 매체, 워크숍, 졸업작품, 쇼케이스, 트라이아웃 공연 등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이어야 한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원, 우수상에는 상금 100만원이 상장과 함께 주어진다.

자세한 공모요강과 신청서는 광주 서구문화원 누리집(www.gjsg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062-681-4174.

도선인 기자

## 드영미술관 이의선 작가 ‘세상의 문’에 대한 이야기

### 제3회 개인전 ‘THE DOOR’

#### 내달 18일까지 3전시실

광주 동구 운림동 드영미술관이 레드거 제3회 개인전 ‘THE DOOR’을 오는 1월18일까지 3전시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전시 ‘THE DOOR’은 세상을 향한 이의선 작가의 문에 대한 물음이다.

이의선 작가가 화가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문과 사회적 존재로서 바라보는 문, 가족으로서 바라보는 문들은 공통점이 있지만, 매우 다르다.

이의선 작가는 자신의 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크게 네 가지로 자유로움, 자연스러움, 고독함, 확고함이라고 설명했다.

작가에게 ‘자유로움’은 곧, 행복이다. 출발점은 ‘죽음’에 대해 느끼는 허무함에서 시작했다. 그가 최초 접했던 ‘죽음’은 8살 때다. 교통사고로 5살 동생이 죽었다. 충격적인 경험은 ‘죽음’에 대해 느끼는 작가의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끼쳤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이라는 한계성에서 작가는 ‘자유로움’을 택하고 있다.

작가에 ‘자연스러움’이란 가장 잘 맞는 말이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는 걸 받아들이기 전, 이의선은 이의선이 아니었다. 무엇이 자신인지 헷갈렸고 자신감도



드영미술관 레드거 제3회 개인전 ‘THE DOOR’ 전경.

드영미술관 제공

없었다. 그러나 자연스러워지자 언제 잃어버렸는지 몰랐던 삶을 자연스럽게 되찾았다.

작가는 ‘고독함’을 오래 전부터 느끼며 살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걸 깨달았다. 그는 고독은 자신이 이해(나의 자유의식)받지 못하는 결핍에서 온다고 말한다. 늘 고독함을 느끼지만 그것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확고함’,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작가에게겐 당연한 것. 자신이 왜 그림을 그리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지금은 이유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다.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의선의 확고함이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일종의 ‘에너지 덩어리’로 인식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너지·느낌·기분·힘·기운)을 그림 속에 담아내려 한다. 이번 전시 공간에서 이의선의 세상과 관객의 세상은 뒤섞이게 된다. 작가는 그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재밌는 상상을 한다.

영원한 젊음이라는 뜻의 드영미술관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

도선인 기자